

에밀레종 비천상서 한국 인물화 원형 찾는다

이대박물관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 특별전

범종에 새겨진 비천상(飛天像)의 모습에서 고대 한국인물화의 원형을 찾는다.

이같은 시도가 이화여대박물관이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는 '에밀레종 :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 특별전에서 이뤄진다. 이 전시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봉덕사 성덕대왕 신종(에밀레종) 탁본이다. 악기를 들고 구름에 올라간 형상으로 그려진 비천상은 7세기 한국 인물화의 걸작으로 손꼽는다.

국도로 정교하게 표현된 비천상은 신성하면서도 기쁨에 넘쳐 보인다. 원음(圓音)이 울리기도 하면, 금방이라도 리듬감 넘치는 풍악으로 극락으로부터 내려올 것 같다. 또한 이 전시회에는 상원사종, 실상사종, 비천상 탁본들도 함께 전시돼, 입체적인 범종과는 다른 독특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다.

불교에서 비천(飛天)은 하늘을 떠도는 천인(天人)으로 항상 주악(奏樂)과 산화(散花)를 하는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8세기 통일신라 이후부터는 매우 사실적이고 화려하며 세련된 양식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는데, 성덕대

왕신종과 상원사종, 실상사종 등에서 가장 전형적인 양식을 보인다. 통일신라의 비천상은 고려 조선의 범종, 승탑 단청을 비롯 각종 공예에까지 시대적인 특징을 지니면서 두루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비천상이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적 측면에서 고대 한국인물화의 원형을 찾아가는 모티브로 채택된 것이다. 이화여대박물관 장남원 학예관은 "에밀레종에 표현된 비천상은 그것이 범종 위에 부조의 조각으로 표현되기 전에, 이미 한족의 인물화로 먼저 구현되었다"면서 "이는 조선시대 이전의 회화적 유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대에도 뛰어난 인물화가 존재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설명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우리 옛 조각가들과 화가들의 손을 거쳐 의인화되면서도 동물들 각각의 본성을 완벽하게 표현된 경우 원원사지 동탑 십이지신상, 김유신 묘 십이지신상, 괴릉(掛陵)의 십이지신상 탁본 등에서 초기 한국인물화의 기초를 감상할 수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에 남아 있는 이 십이지신상 부조

들은 대부분 7세기에서 8세기경에 제작된 것으로, 초기한국인물화에서 십이지신상의 인체 표현기법을 엿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회화를 중심으로 서술되어온 한국회화사에서 벗어나 그 이전의 회화유물들을 고찰하고, 한국고대 회화의 흔적을 찾아간다는 것이 이번 전시의 목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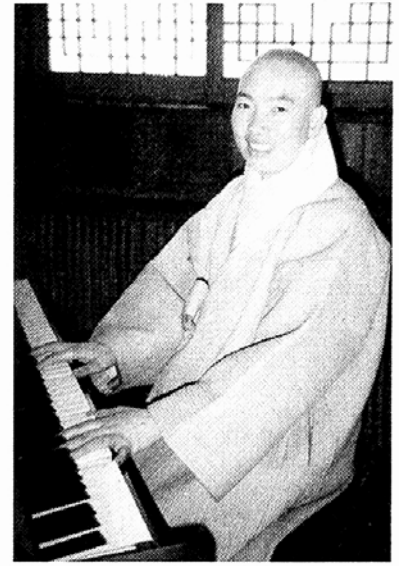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는 이화여대박물관 소장품을 중심으로 비천상 탁본을 비롯해 선사시대와 삼국시대의 토기, 청동기 등의 유물과 통일신라시대 십이지신상 탁본 및 와당, 금속공예품 등 총 150점이 선보인다. 비천상과 십이지신상 탁본 전시품의 사실적 전통외에 신석기시대의 빗살무늬 토기나 청동기 유물에서는 우리 회화의 기하·추상적 전통도 찾아볼 수 있다.

전시와 더불어 이화여대박물관은 오는 17일 오후 4시 국립경주박물관 강우방관장의 '한국고대 조각으로 본 회화의 흔적(가제)' 특별강연을 마련해, 한국회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ejlee@buddhania.com)



◇이화여대박물관 소장의 에밀레종 탁본.(410×167.5)



◇찬불가 연습을 위해 피아노에 앉은 정률스님.

찬불가 모음집 낸 정률스님

"아름다운 선율로 부처님 가르침 대중 가슴속에"

공교롭게도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느낌일까! 더욱이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수행의 길을 걷는 스님이라면...

수행자이면서 대중 속에서 음악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성악가 정률스님이 최근 찬불가 모음집 '영겁을 하루같이'를 발표하고, 활발한 음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찬불가 한국에 감흥을 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청중을 만날 때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음포교에 직접 나서겠다고 다짐해 왔다"는 스님은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이뤄내기 위해 이번에 찬불가 앨범을 제작했다. 총 14곡이 수록된 이번 앨범 가운데 '향심'을 비롯, '영겁을 하루같이' '작은 마음의 노래' 등은 스님이 직접 작사한 것이다.

"향심"은 제가 노랫말을 쓰고, 작곡가 조영근씨가 곡을 붙였습다. '미음의 먹물' '모든 것 다바치렵니다'는 노랫말 속에 부처님 가르침을 찬탄하고, 출가자로서 제 자신의 길을 표현하려했습니다."

스님은 원광대 대학원 음악교육과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음악도이면서, 운문사 승가대학 등지에서 스님들에게 불교음악을 강의하고, 또 주말에는 각종 음악공연 현장에서 아름다운 찬불가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등 누구보다도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지난 88년 삼승회 음악공연을 계기로 본격적인 음악활동을 시작한 후, 올 1월 힐튼호텔에서 열린 한국불교음악협회 창립기념 음악회를 비롯, 청주공공기관학교 초청음악회, 강화도 선원사 초청음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4월16일에는 인천 간석2동 천주교 성당에서 열리는 작음음악회에서 타종교인들에게 찬불가를 통해 불교의 정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스님은 찬불가 앨범 발표와 더불어 사찰합창단 지휘자와 대학강사 8명으로 구성된 '부루나 솔리스트 앙상블'을 결성, 앞으로 보다 폭넓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은자 기자

일상의 갈등 중도적 표현

이달중씨 '제주 생활의 중도展'

19일까지 가나아트센터

"육식을 버려야 한다. 짐작을 끊어야 좋은 작품을 그릴 수 있다"며 제주도로 떠났던 화가 이달중씨가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센터에서 '제주 생활의 중도'전을 연다.

1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중도(中道)를 화두로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이씨가 지난 10년간의 창작생활을 총 결산하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씨는 이번 전시회에서 도조작품 31점과 장지그림 41점, 보자기작품 3점 등 75점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중도의 세계'를 펼쳐보인다.

꽃, 들하르방, 배, 새, 노루, 말, 물고기, 자동차, 텔레비전, 전화기 등을 소재로 일상의 대립과 갈등을 중도적으로 표현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짝꿍으로 표현하고, 쾌락을 즐기는 사람을 동백꽃으로, 중요하는 사람을 새로, 고통받는 사람을 텔레비전으로, 희망과 절망, 고통을 추구하는 사람을 물고기로 승화시켜 의인화하는 등 평상심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자신의 마음을 화폭에 그려내고 있다. 이밖에 흙에 갖가지



◇한지에 옮겨본 제주 생활의 중도.

무늬를 새겨 넣은 향대와 부조, 천을 사용한 콜라주 형태의 대형 보자기 등 새로운 기법과 소재로 한 작품들도 감상할 수 있다.(02)3216-1020

이은자 기자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밤

'중요무형문화재 전통무용의 밤'이 12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태평무, 처용무, 살풀이, 승무, 학연대합설무 등의 무형문화재 이수자 공연과 지난 해 7월에 열린 '제1회 전국전통무용경연대회' 수상자들의 발표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신진 무용가들의 전통무용 계승수준을 확인할 수 의미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02)3675-6501

해인사 대장경판 DB구축

문화재청, 2004년까지

해인사 대장경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고,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해 신라기금 10만달러가 유네스코를 통해 지원된다. 문화재청(청장 서정배)은 2월 22일 '2000년도 문화재청 업무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업무 계획'에 따르면 문화재 기록 전산화 작업의 하나로 2004년까지 해인사 대장경판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장기적인 보존을 위해 강원도 삼척의 준경묘와 연경묘 지역을 문화재 보수용 천연림 육림지로 집중 육성한다.

또 고구려 고분 등 북한문화재 보존을 위해 10만 달러를 유네스코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북한문화재의 세계유산 등록·신청사 관계 부처와 협의해 이를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2만 6천여 기가 보고된 남한 지역 고인돌 보호를 위해 새로운 관리체계를 수립해 고인돌마다 고유번호를 매겨 관리하는 한편 12월 세계유산등록이 유력한 고향·화순·강화지역 고인돌의 주변 토지를 매입·정비할 계획이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만다라 예술제전 현장에서 범명스님이 행위선사화를 시연하고 있다.

만다라 예술제전

새천년 만다라 예술제전이 23일까지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화랑에서 열린다.

문화교류협회가 주최하는 이번 제전에는 티벳 만다라 120점을 비롯, 도예가 설봉스님의 신작 발표 예비전시품과 범명스님의 행위선사화 시연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진다. 또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후보지정 박정자씨의 금니탕화도 전시되며, 티벳, 네팔의 승무 등 전통민속음악 공연과 인도, 파키스탄, 미얀마, 몽고 등 7개국의 전통 문화 소품 500여점이 전시판매된다.(02)732-6372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기도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성취가 달라집니다.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찬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보고, 각 장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속에서 틀림없이 업장을 소멸하고 영가천도·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합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해 보시기들!

신간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1.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2.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흔히들 지장보살은 영가천도의 보살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장신앙 속에는 영가천도뿐만 아니라 행복과 깨달음, 성불의 비결까지 간직되어 있습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기도를 비롯하여,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알기 쉬운 불교서적

관음신앙·관음기도법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불교신앙의 필독서

4×6 판 / 값 3,500원

관음신앙의 뿌리에서부터 관세음보살의 구원능력,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관음기도법 등 관음신앙에 대한 모든 것이 쉽고 재미있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불자들 대부분 신봉하고 있는 관세음보살!

관음의 가피와 기도성취를 원한다면 꼭 이 책을 펼쳐 드십시오.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육바라밀 수행법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바라밀!

4×6 판 / 값 3,500원

육바라밀 수행법은 고해의 중생을 피안의 세계로 인도하는 큰 배입니다. 이 여섯 가지 바라밀의 정신을 깨달아 실천하면 누구나 행복과 성불을 보장받게 됩니다.

《육바라밀 수행법》이 하권의 책으로 행복하고 청정한 삶을 이루는 지름길을 만나십시오.

예불을 통한 불보살의 가피!!

예불,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5,000원

많은 불자들이 아침 저녁으로 예불문을 외우며 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예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약 예불문 속에 깃들여 있는 의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예불을 올린다면, 참된 예불은 물론 삼보의 가피를 쉽게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불을 올리는 불자들이 궁금해하면서도 마땅히 답을 얻기 어려웠던 것들,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제2회 불교출판문화상 대상 수상작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신국판 / 값 7,000원

절에 오래 다닌 불자들조차도 무심히 흘러보였던 사찰 곳곳에 간직되어 있는 숨겨진 의미들……. 사찰 속의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찰 초입(初入口)의 일주문에서부터 사물(四物), 석동, 탑, 그리고 여러 법당 등에 담겨진 의미와 구조, 빈틈 등을 깊이 있게 다룬 이 책은 독자들에게 불교예술과 사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것입니다.